

재창작 무용극 〈인·삼〉 장춘서 초연, 인기 만점

경전작품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새롭게 빛날 수 있다



▲ 무용극 〈인·삼〉 첫 공연의 한 장면

최근 길림성가무단에서 정성껏 재창작한 무용극 〈인·삼〉이 장춘영화제작소 음악청에서 첫 공연을 펼쳤다. 공연의 막이 내리자 현장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터지며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관중들은 공연의 여운에 빠져 오래도록 자리를 떠날념을 하지 않았다.

“기복이 있는 줄거리와 생동감 넘치며 우아한 춤사위가 무용극 전체를 현실을 초월한 아름다움으로 물들었다.” 시민 왕녀사는 격동되어 말했다.

무용극 〈인·삼〉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관중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 문화 명함을 활용해 길림 인삼의 ‘황금간판’을 빛내다

무용극 〈인·삼〉은 2015년에 창작되었다. 길림의 우수한 지역 문화를 반영하는 이 대형 창작 무용극은 수차 영예를 안았다. 성장백산문예상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무대예술 우수창작지원 프로젝트 핵심지원 작품’, ‘전국 무대예술 우수작품 및 우수민족오페라 전시 연출’에 선정되었으며 단마르크와 노르웨이로 가서 ‘즐거운 춘절’ 공연 활동에 참여하여 세계 관중들에게 동양 미학의 독특한 매력을 선물했다.

무용극 〈인·삼〉은 성가무단의 대표적인 큰 ‘명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창작팀의 주연 배우들은 모두 외지에서 초빙된 분들이었다. 우리 성이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성가무단은 용기를 내어 자기의 팀으로 재창단

하기로 결정했다.

“재공연을 결정한 때부터 무대에 올리기까지 우리는 고작 두달 밖에 걸리지 않았다. 모든 배우들은 설 연휴도 포기하고 함께 반복해서 다듬고 연습했다. 예술종사자로서 우리는 이 ‘명함’을 잘 활용하여 우리 성의 문화와 정신이 무용극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재공연 감독 리미혜는 “성가무단은 예술을 매개로 하여 문예 작품으로 길림

■ 고전을 토대로 새로운 창조와 정교한 작품으로 마음을 울린다

산을 누비며 삼을 찾고 산신령께 제사를 지내고 붉은 끈을 매어놓은 삼을 캐어내고... 무대 위에서 채삼군은 허리를 구부정하고 숨을 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진을 이룬다. 장단과 호흡의 소리가 결합되며 옛 ‘인삼 개기’ 문화의 장중함과 신비로움이 극대화된다.



인삼의 ‘황금간판’을 빛내고 산업 역량 강화자와 지역 대변자의 사명과 책임을 자발적으로 짊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용극 〈인·삼〉이 시대를 초월해 빛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이 인삼산업을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두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문예 창작과 산업 연동의 쌍방향 역량을 발휘하여 예술 전승과 혁신에서 길림 ‘인삼’에 더 깊은 생명력과 영향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관중들은 마치 심산의 신비한 경지에 있는 듯 숨을 죽이고 정신을 가다듬으며 동북 민간 신앙의 온도를 느낄 수 있게 된다. 무용극은 장백산의 이야기와 전설을 주선으로 장백산 인삼 문화, 사머니즘 문화, 동북 민속 등 문화 부호들을 녹여냈다. 극히 긴장감 넘치는 무대예술을 통해 신화 캐릭터의 인간적 온도를 해석하고 고대 전설에 새로운 예술적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길림지역의 특성을 립체적이고 심

층적으로 표현했다.

무용극은 또한 인삼 채취 도구인 ‘빨간 끈’을 령혼의 련결고리로 인간과 인삼, 정과 의리의 갈등을 련결시켰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와중에 의사는 창생을 구할 것인가 평생의 사랑을 지킬 것인가 하는 어려운 선택 앞에 놓여졌다. 배우는 박진감 넘치는 무용 동작으로 인성의 몸부림과 승화를 극치에 끌어올렸다. 결국 인삼 처녀는 목숨을 바쳐 영원한 사랑(大爱)으로 화한다. 무대 위에서 눈물과 박수가 교차하고 무대 아래에선 관중들이 저마다 숨을 죽이고 감탄한다. “이것은 춤이 아니라 가슴을 후벼파는 충격이다!”

■ AI가 꿈을 만든다! 기술로 신화를 ‘살아 움직이게’

무대극은 동북지역의 문화적 내재성을 바탕으로 현대적 방식으로 풀어냈다. 제1장 ‘인간 세월’에서는 동북지역 특유의 양걸춤, 손수건 곡예, 부채 던지기 등 특색있는 예술형식으로 관중들을 활기차고 들뜬 축제의 현장으로 이끌었다. 인삼 처녀와 젊은 의사가 양걸춤판에서 첫눈에 반하는 장면은 동북 특유의 량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번 재공연은 무대미술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음향, 빛, 전기의 효과를 알고리즘으로 깊이 융합시켜 ‘인간, 경물, 정감’의 다차원적인 구축을 이루어냈다.”고 무대 감독 고방위는 설명했다.

극중 의사가 ‘산림의 꿈’에 빠져들 때 AI 기술로 순식간에 장백산 신비의 경계를 재구성한다. 관중들은 삼시에 이 황홀한 세계에 끌려들어가듯 듯한 느낌을 받는다. 거대한 배경 스크린에는 깊고 신비로운 숲의 풍경이 펼쳐지며 반짝이는 별빛과 환상적인 빛이 어우러진다. 무대에는 아롱거리는 채색의 안개가 흐르고 배우들은 그 사이를 숲의 정령처럼 누비며 다닌다. 무용수들 손의 화려한 소품들은 조명 아래서 령롱하게 빛나며 디지털 시각 효과와 무용수의 움직임이 하나가 된 환란한 자태를 보여주며 현실인 듯 환상인 듯한 동화 속 장면을 만들어낸다. 눈부신 광경에 관객들의 마음마저 인삼의 령적 세계에 들어선 듯하다.

“첫 공연이 끝난 후 여러 의견 수렴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 공연에서는 더 나은 모습으로 관중들과 만나고자 한다.”라고 성가무단 단장 류잉과 부단장 단진남은 말했다. 이들은 이제 북경으로 가 원작 감독과 더욱 깊이있는 소통을 하며 더 나은 예술적 표현을 모색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무대극 〈인·삼〉은 올해 4월과 5월에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파스한 봄빛 속에서 생명, 신앙, 헌신을 담은 이 시각적 서사시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 길림일보

제 15 회 북경국제영화제 화려한 막 올라



제 15 회 북경국제영화제가 4월 18일 북경에서 개막되었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는 우리 나라의 대표 영화인 강문(姜文)이 ‘천단(天壇)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배우 진충(陈冲)과 데이빗 예이츠(해리포터 시리즈 감독) 등 국제적인 영화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메인 경쟁부문에는 103개국에서 제출된 1,794 편의 작품중 우리 나라 영화 《천류지락(好好的)》, 《여의호텔(如意饭店)》, 《대풍살(大风杀)》을 포함한 15 편이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처음 북경국제영화제에 도입된 ‘북경영화생활주간’은 영화 속 미

식 체험, 봄맞이 관객 혜택 등 4대 테마 행사를 통해 영화 소비와 문화 관광의 융합을 도모한다. 공식 메인 포스터는 고궁 만춘정의 정교한 천장 장식을 모티브로, 만화경 형태를 통해 영화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상징화했다.

영화제 기간, 개막식에 이어 ‘북경상영회’, 영화산업포럼 등 9개 본 행사가 진행되며 ‘천단상’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작품상·감독상·연기상 등 10개 부분의 수상작이 발표된다.

북경국제영화제는 우리 나라 영화의 개방성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국제 문화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국제온라인

무형문화유산 속 꽃의 미학—심포춘 ‘잠화피’



송나라 문학가 구양수는 《략양모란기(洛阳牡丹记)》에서 “봄이 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성안의 모든 이가 꽃을 쫓는다.”고 썼다. 여기서 묘사된 꽃이 바로 ‘잠화(簪花)’이다. 송나라 시기,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머리에 꽃은 ‘전민 잠화’가 유행처럼 번졌다.

현대에 와서 ‘잠화’ 하면 뽀빠이를 수 없는 곳이 바로 북건설 침주시의 심포춘에서 행해지는 ‘잠화피(簪花围)’다. 2008년, 이를 대표로 하는 심포 녀성들의 풍속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프로젝트 목록에 등재되었다. 해외와의 빈번한 교류 속에서 해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항구였던 심포에는 이국적인 꽃문화가

류입되었다. 이는 지역 전통과 결합되어 점차 ‘잠화피’라는 독특한 풍속을 나타냈다.

화려하고 싱싱한 장미, 청아하고 은은한 말리, 생기 넘치는 국화 등 어떤 꽃이든 잠화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잠화피는 아름다움에 대한 심포 녀성들의 집요한 추구를 상징하며 바쁜 삶 속에서도 머리 장식으로 량만을 잊지 않는 정신 풍모를 보여준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심포춘은 잠화피와 같은 다양한 기예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통해 작은 마을 속 ‘큰 문화’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다.

/ 국제온라인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할빈의 개강민속문화



▲ 개막식 민속 공연의 한 장면

2025 할빈시 개강(开江) 민속문화주간이 일진 할빈대극원 강변 광장에서 개막되었다.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한해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송화강 개강 장관을 구경했다. 할빈의 개강문화는 천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막식은 개강민속 전시, 무형문화유산 전시, 개강의식 개시, 100

인 주제 합창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송화강 류역 할빈 구간의 개강민속문화와 다채로운 무대예술, 화려한 무형문화유산을 융합해 특색있는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장면과 공간을 창출했다.

현장에는 또 무형문화유산, 창의문화, 먹거리 등 전시구역이 마련되며 관객들을 흡인했다.

/ 흥룡강일보

출간기별

길림성서류관 《철증여산》 총서 29 권 완간



최근 길림성서류관에서 10년에 걸쳐 편찬한 《철증여산(铁证如山)》 시리즈 총서 29 권이 전부 출간되었다. 이 시리즈는 일제 침략 력사 기록을 바탕으로 전쟁의 가해자(일본), 피해

자(중국), 그리고 일제 침략을 목격한 제3자의 다양한 시각에서 9.18 사변 이후 일본이 동북지역에서 자행한 수많은 학살 사건과 만행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이는 일본군국주의와 그 식민 통치의 죄행을 반박할 수 없는 확고한 증거로 남게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철증여산》 시리즈는 주로 일본 관동군 헌병대 사령부의 두가지 류형의 보고서—〈우편검열보고서(邮政检阅报告)〉와 〈사상대책보고서(思想对策报告)〉를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이 두 보고서의 연구 및 정리를 통해 일제 침략 전쟁의 생존자와 피해자들의 실제 삶과 진실된 감정이 재현되었다.

이 책에서 독자들은 일제의 ‘경제통제’, ‘차별대우’, ‘강제동원’, ‘강제로동정책’, 그리고 ‘이민침략전략’ 아래에

서 궁핍함, 분노, 무력함, 비참함 그리고 갈 곳을 잃은 동북지역 민중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2014년부터 길림성서류관은 《철증여산》 시리즈 편찬 작업을 시작했다. 출간된 매 권권의 책에는 기록연구원들의 심혈과 땀방울이 서려있다.

기록보관소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관동군 헌병대가 패주하며 파기하지 못한 채 남긴 기록 속의 일제 침략 만행을 발굴하기 위해 해당 보관소는 기록 전문가, 력사학자, 번역가로 구성된 전문팀을 꾸렸다. 그들은 14개의 연구반을 별도로 구성해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번역·해석하고 심층 연구를 진행했으며 10년에 걸친 성과를 《철증여산》 시리즈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했다.

이 시리즈는 일제의 산더미같은 침

략 죄행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복원해 일본 침략사 연구에 새로운 사료적 근거를 제공했다.

《철증여산》 시리즈는 국가출판기금과 국가사회과학기금 항일전쟁 연구 전문 프로젝트의 중요한 성과물이다. 이는 단순히 중화민족의 고통을 기록한 ‘비망록’이 아닌, 인류 문명 대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올해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전쟁 승리 80 주년을 맞는 해이다. 완간된 29 권의 시리즈는 영어, 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 출판되어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국제사회가 중일간 력사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길림일보